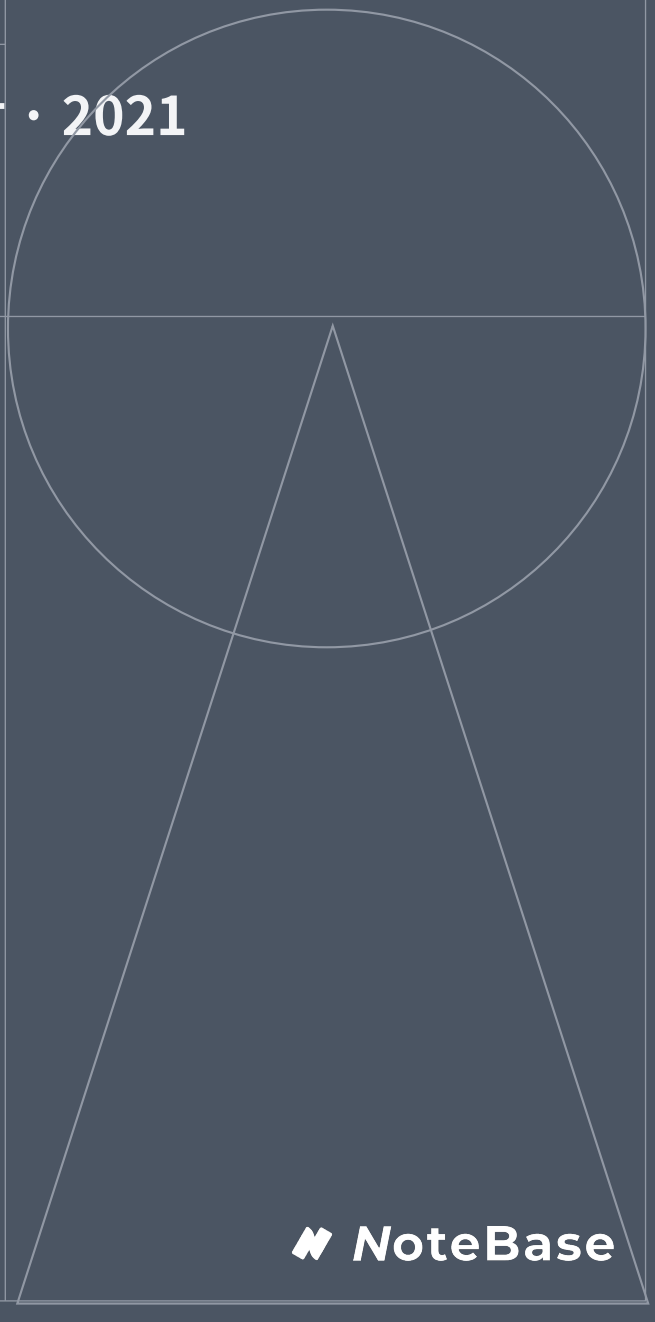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1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1

문 1.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구축물을 ₩1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구축물은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원상복구해야 한다.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서울은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을 ₩30,000으로 예상하였으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는 ₩18,600이었다. (주)서울이 실제 복구 시에 지출한 금액은 ₩30,000이다. 복구 의무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주)서울이 5년 동안 추가로 인식해야 하는 총비용은?

① ₩18,600

② ₩30,000

③ ₩60,000

④ ₩118,6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복구의무가 있을 때 자본화되는 복구비용의 현재가치와 복구충당부채의 할인상각을 함께 반영하여, 복구의무가 없을 때보다 5년 동안 추가로 인식되는 총비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건축물 취득금액 100,000원
- 복구비용 추정액 30,000원
-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18,600원
-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

구해야 할 값:
- 복구의무가 없을 때와 비교한 5년간 추가 총비용

주의할 조건:
- 현재가치 18,600원은 건축물 원가에 가산되고, 같은 금액의 복구충당부채가 인식된다.
- 부채는 만기까지 30,000원으로 증가하므로 그 차이 11,400원은 기간별 이자비용으로 인식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추가 총비용 = 추가 감가상각비 + 복구충당부채 할인상각액
추가 감가상각비 = (18,600원)/(5년) × 5년 = 18,600원
복구충당부채 할인상각액 = 30,000원 - 18,600원 = 11,400원
추가 총비용 = 18,600원 + 11,400원 = 30,000원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복구의무가 있으면 현재가치만큼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한다. 자산에 더해진 18,600원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되고, 부채는 복구시점의 실제 지급액 30,000원까지 증가하면서 할인상각이 이자비용으로 인식된다.

계산 과정

1. 복구의무가 있을 때 건축물 장부원가는 100,000원 + 18,600원 = 118,600원이다.
2. 복구의무가 없을 때 총감가상각비는 100,000원이고, 복구의무가 있을 때 총감가상각비는 118,600원이므로 추가 감가상각비는 18,600원이다.
3. 복구충당부채는 최초 18,600원에서 최종 30,000원으로 증가하므로 할인상각에 따른 추가 이자비용은 11,400원이다.
4. 따라서 5년 동안 추가로 인식할 총비용은 18,600원 + 11,400원 = 3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8,600원은 복구비용 현재가치로 자산에 가산되는 금액이자 5년 동안 추가로 감가상각되는 총액일 뿐이다. 틀린 표현은 총비용을 현재가치만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추가 총비용은 18,600원에 부채 할인상각 11,400원을 더한 30,000원이다.
② O: 추가 감가상각비 18,600원과 복구충당부채 할인상각액 11,400원을 합하면 30,000원이다. 복구의무가 없을 때와 비교한 5년간 추가 총비용을 정확히 반영한 값이다.
③ X: 60,000원은 복구비용 30,000원을 자산원가 증가분 30,000원처럼 잘못 보고 다시 비용화하는 식의 이중계산에서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실제 복구지출 30,000원 전체를 별도의 추가비용으로 다시 더하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실제 지출 30,000원은 이미 추가 감가상각 18,600원과 할인상각 11,400원으로 기간비용화된다.
④ X: 118,600원은 복구의무를 포함한 건축물의 총취득원가이다. 틀린 표현은 자산의 장부원가를 5년간 추가 총비용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118,600원 중 원래 자산원가 100,000원은 비교대상에도 존재하므로 추가 비용은 30,000원만 남는다.

오답 포인트

현재가치 18,600원을 곧바로 총추가비용으로 오인하거나, 실제 복구지출 30,000원을 다시 별도 비용으로 더해 이중계산하는 함정이 핵심이다. 이 문항은 자산에 가산된 금액은 감가상각으로, 부채 증가분은 이자비용으로 나뉜다는 구조를 구분해야 풀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구의무 문제는 먼저 현재가치가 자산원가에 가산되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그 가산분의 총감가상각액과 부채의 할인상각액을 분리해서 합산하면 된다. 비교문제에서는 기존 자산원가 100,000원처럼 원래도 인식될 비용은 제외하고 증가분만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복구의무의 추가 총비용은 현재가치 자체가 아니라 자산 가산분의 감가상각 총액과 부채 할인상각 총액의 합이며, 전체적으로는 최종 복구지출액 30,000원과 같아진다.

NoteBase

문 2. (주)서울은 20X1년 초 건물을 구입(취득원가 ₩3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20X3년 초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며, ₩40,000의 자본적 지출로 내용연수는 3년 연장되었고 잔존가치는 ₩10,000 증가하였다. (주)서울이 인식할 동 건물의 20X3년 감가상각비는?

① ₩21,250

② ₩25,000

③ ₩41,250

④ ₩55,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하던 건물의 기초 장부금액을 구한 뒤, 자본적 지출과 변경된 잔존가치·잔여내용연수를 반영하여 20X3년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취득원가 300,000원, 최초 내용연수 5년, 최초 잔존가치 0원이다.
- 20X1년과 20X2년은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다.
- 20X3년 초에 자본적 지출 40,000원이 발생한다.
- 20X3년 초부터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잔존가치는 10,000원으로 증가한다.
- 20X3년 초의 기존 잔여내용연수 3년에 3년이 추가되어 변경 후 잔여내용연수는 6년이다.

사용할 공식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잔존가치) × (해당연도 잔여연수)/(연수합계)이다.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변경시점 장부금액+자본적 지출-변경 후 잔존가치)/(변경 후 잔여내용연수)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20X3년 초부터는 과거를 다시 고치지 않고, 그 시점의 장부금액에 새 추정을 반영하여 남은 기간에 걸쳐 상각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연수합계는 $5 + 4 + 3 + 2 + 1 = 15$이다.
2. 20X1년 감가상각비는 $300,000 \times \frac{5}{15} = 100,000$원이다.
3. 20X2년 감가상각비는 $300,000 \times \frac{4}{15} = 80,000$원이다.
4. 20X3년 초 장부금액은 $300,000 - 100,000 - 80,000 = 120,000$원이다.
5. 자본적 지출과 새 잔존가치를 반영한 상각대상금액은 $120,000 + 40,000 - 10,000 = 150,000$원이다.
6. 변경 후 잔여내용연수 6년으로 나누면 20X3년 감가상각비는 $150,000 \div 6 = 25,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21,250원은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한 기존 누적감가상각을 잘못 잡거나, 변경 후 잔여내용연수를 총 내용연수처럼 잘못 적용할 때 나오는 오답값이다.
- ①의 금액 21,250원 → 올바르게는 25,000원이다.

② O
- 20X3년 초 장부금액 120,000원에 자본적 지출 40,000원을 더하고 새 잔존가치 10,000원을 차감한 뒤, 연장된 잔여내용연수 6년으로 나누면 25,000원이다.
- 따라서 ②의 금액이 맞다.

③ X
- 41,250원은 이미 2년간 상각한 누적감가상각액 180,000원을 무시하고, $(300,000 + 40,000 - 10,000) \div 8$처럼 총 내용연수 기준으로 다시 나눈 오답값이다.
- ③의 금액 41,250원 → 올바르게는 25,000원이다.

④ X
- 55,000원은 이미 상각한 부분을 빼지 않고, $(300,000 + 40,000 - 10,000) \div 6$처럼 잔여 6년만 적용한 오답값이다.
- ④의 금액 55,000원 → 올바르게는 2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내용연수 3년 연장을 총 내용연수 재설정으로 오해하거나, 자본적 지출 후에도 과거 2년간의 누적감가상각을 빼지 않는 데 있다. 감가상각방법 변경과 내용연수·잔존가치 변경은 모두 변경시점 장부금액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추정 변경 문제는 먼저 변경 직전 장부금액을 구하고, 그다음 자본적 지출을 더한 뒤 새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상각대상금액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변경 후 잔여내용연수로 나누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감가상각 추정 변경은 과거를 고치지 않고, 변경시점 장부금액을 새 잔여연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NoteBase

문 3. (주)서울은 20X1년 7월 1일 ₩100,000에 건물을 취득하여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이 건물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법으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20X1년 말과 20X2년 말 이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108,000과 ₩58,000이었다. 이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2년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① ₩8,000 손실

② ₩26,000 손실

③ ₩32,000 손실

④ ₩50,000 손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에서 재평가증가로 생긴 재평가잉여금, 그 다음 연도의 감가상각비, 재평가감소의 당기손익 반영액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취득원가: 100,000원
- 취득일: 20X1년 7월 1일
-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 20X1년 말 공정가치: 108,000원
- 20X2년 말 공정가치: 58,000원
-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감가상각비 = (장부금액)/(잔존내용연수)
재평가감소의 당기손익 반영액 = 재평가감소액 - 기존 재평가잉여금 차감액
이 문제는 20X1년 말 재평가증가로 재평가잉여금이 먼저 생기고, 20X2년 말 재평가감소가 그 잉여금을 먼저 차감한 뒤 초과분만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상황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1년 감가상각비는 $100,000 \times \frac{6}{12} \div 5 = 10,000$원이다. 따라서 20X1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90,000원이다.
2. 20X1년 말 재평가증가액은 $108,000 - 90,000 = 18,000$원이다. 이 18,000원이 재평가잉여금으로 누적된다.
3. 20X2년 초 재평가 후 장부금액은 108,000원이고 남은 내용연수는 4.5년이므로 20X2년 감가상각비는 $108,000 \div 4.5 = 24,000$원이다. 따라서 20X2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84,000원이다.
4. 20X2년 말 재평가감소액은 $84,000 - 58,000 = 26,000$원이다. 이 중 18,000원은 기존 재평가잉여금을 차감하고, 초과 8,000원만 재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5. 20X2년 당기손익 영향은 감가상각비 24,000원 손실과 재평가손실 8,000원 손실의 합계인 32,000원 손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8,000원은 20X2년 말 재평가감소액 26,000원 중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초과분만 본 값이다. 20X2년에는 재평가 후 장부금액 기준 감가상각비 24,000원도 이미 비용 처리된다. "8,000원 손실" → 올바르게는 감가상각비 24,000원과 재평가손실 8,000원을 합한 32,000원 손실이다.

② X: 26,000원은 재평가감소액 전체이지 당기손익 영향 전체가 아니다. 기존 재평가잉여금 18,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그 한도까지는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된다. "26,000원 손실" → 올바르게는 당기손익 반영 재평가손실은 8,000원이다.

③ O: 20X2년 당기손익에는 감가상각비 24,000원과 재평가손실 8,000원이 반영되어 총 32,000원 손실이 된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20X1년에 생긴 18,000원이 20X2년 말까지 그대로 남아 재평가감소를 먼저 흡수한다.

④ X: 50,000원은 감가상각비 24,000원에 재평가감소액 26,000원 전체를 더한 값인데, 재평가감소액 전부가 당기손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50,000원 손실" → 올바르게는 재평가감소액 중 18,000원은 재평가잉여금 차감, 8,000원만 당기손익 반영이다.

오답 포인트

재평가모형 문제에서는 재평가감소액 전체를 바로 당기손익으로 보내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또한 재평가 후 장부금액으로 다시 감가상각해야 한다는 점과,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놓치면 8,000원이나 50,000원으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평가모형 계산형은 재평가 전 장부금액 계산, 재평가잉여금 잔액 확인,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계산, 재평가감소의 OCI 차감분과 당기손익 반영분 구분의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재평가감소는 기존 재평가잉여금 한도까지는 기타포괄손익, 초과분만 당기손익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4. <보기>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서울의 20X1년 재고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서울은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의 가정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서울은 20X1년 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를 ₩80으로 추정하였고 재고실사를 통해 정상감모손실 ₩1,000을 인식하였다. ㈜서울이 20X1년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비용은?

<보기>

일자	내역	수량	금액
1월 1일	기초재고	20개	₩4,000
3월 1일	매입	20개	₩2,000
5월 1일	매입	40개	₩4,000
8월 1일	매출	30개	?

① ₩1,800

② ₩3,200

③ ₩6,800

④ ₩7,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입선출법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정상감모손실과 저가법 평가손실을 추가해 재고자산 관련 당기비용을 구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기초재고 20개, ₩4,000
- 3월 1일 매입 20개, ₩2,000
- 5월 1일 매입 40개, ₩4,000
- 8월 1일 매출 30개
- 기말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80원
- 정상감모손실 ₩1,000

구해야 할 값:
- 20X1년 재고자산 관련 당기비용

주의할 조건:
-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이다.
- 정상감모손실을 반영한 뒤 저가법 평가손실을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 + 정상감모손실 + 저가법 평가손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재고자산 관련 당기비용에는 판매로 인한 매출원가뿐 아니라 재고실사로 확인된 정상감모손실과 기말 저가법 평가손실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선입선출법에 따라 30개 매출의 원가는 기초재고 20개 ₩4,000 + 3월 매입 10개 ₩1,000 = ₩5,000이다.
2. 판매 후 장부상 재고는 50개, ₩5,000이다.
3. 정상감모손실 ₩1,000은 단가 100원 재고 10개 감소이므로 감모 후 재고는 40개, ₩4,000이다.
4. 기말 순실현가능가치는 40개 × 80원 = ₩3,200이다.
5. 저가법 평가손실은 ₩4,000 - ₩3,200 = ₩800이다.
6. 따라서 재고자산 관련 당기비용은 ₩5,000 + ₩1,000 + ₩800 = ₩6,80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1,800은 정상감모손실 ₩1,000과 평가손실 ₩800만 더한 값이다. 판매 30개에 대한 매출원가 ₩5,000이 빠져 있으므로 틀리다.
- 틀린 표현은 당기비용을 재고감소손실만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매출원가까지 포함한 총 당기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② X
- ₩3,200은 감모 후 재고 40개의 순실현가능가치일 뿐 당기비용이 아니다. 기말재고 평가액을 비용과 혼동한 값이므로 틀리다.
- 틀린 표현은 기말재고 금액을 답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기말재고는 자산 잔액이고, 비용은 매출원가와 손실의 합계이다.

③ O
- 선입선출법 매출원가 ₩5,000, 정상감모손실 ₩1,000, 저가법 평가손실 ₩800을 합하면 ₩6,800이다.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옳다.

④ X
- ₩7,000은 판매 30개 전부를 개당 200원으로 보아 매출원가를 ₩6,000으로 잡은 뒤 감모손실 ₩1,000을 더한 값에 가깝다. 선입선출법에서는 처음 20개만 개당 200원이고, 나머지 10개는 개당 100원이므로 틀리다.
- 틀린 표현은 매출원가 단가를 모두 기초재고 단가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20개는 200원, 10개는 100원으로 계산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정상감모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저가법 평가손실을 먼저 계산하거나, 기말 순실현가능가치 ₩3,200을 그대로 비용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 또 선입선출법에서 30개 전부를 기초재고 단가로 계산하면 ④ 같은 오답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자산 계산형은 판매분 원가를 먼저 확정하고, 실사로 확인된 감모를 반영해 남은 수량과 원가를 다시 잡은 뒤, 마지막에 저가법으로 평가손실을 붙이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고비용은 매출원가 먼저, 감모 반영 다음, 저가법 평가는 마지막이다.

NoteBase

문 5. (주)서울은 20X1년 2월 1일부터 소형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으며, 이 건물은 20X2년 10월 31일에 완공되었다. <보기>는 공사대금지출액과 차입금자료이다. 20X1년 건설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A의 ₩800,000 중 ₩100,000은 2개월간 연 3%의 투자수익률로 일시 투자되었다면, 20X1년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보기>

구분	20X1. 2. 1.	20X1. 8. 1.	20X2. 3. 1.	20X2. 9. 1.
공사대금 지출액	₩300,000	₩700,000	₩600,000	₩400,000

차입금 종류	금액	기간	연이자율	비고
차입금A	₩800,000	20X1. 1. 1.부터 20X2. 12. 31.까지	6%	건설과 직접 관련 있음
차입금B	₩400,000	20X1. 7. 1.부터 20X2. 6. 30.까지	8%	건설과 직접 관련 없음
차입금C	₩300,000	20X1. 12. 1.부터 20X2. 12. 31.까지	10%	건설과 직접 관련 없음

① ₩43,500

② ₩44,000

③ ₩47,500

④ ₩48,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구할 때 자본화기간의 실제이자에서 일시운용수익을 차감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차입금A 800,000원, 연이자율 6%, 건설 시작일 20X1.2.1, 20X1년 일시투자금 100,000원, 일시투자수익률 연 3%, 투자기간 2개월이다.
구해야 할 값: 20X1년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자본화는 건설을 시작한 20X1.2.1부터 가능하므로 20X1년 1월 이자는 제외하고, 일시운용수익 500원은 차감한다.

사용할 공식

자본화가능차입원가 = 자본화기간 중 특정목적차입금 실제 발생이자 - 일시운용수익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차입금A는 건설과 직접 관련된 특정목적차입금이므로 가중평균지출액에 일반차입이자율을 곱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이자에서 일시운용수익을 차감하는 구조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자본화기간 중 특정목적차입금 실제이자를 구한다.
$800{,}000 \times 6\% \times \frac{11}{12} = 44{,}000$
2. 일시운용수익을 구한다.
$100{,}000 \times 3\% \times \frac{2}{12} = 500$
3.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구한다.
$44{,}000 - 500 = 43{,}500$

선지별 해설

① O: 계산 결과가 43,500원이므로 옳다. 특정목적차입금의 20X1년 실제이자 44,000원에서 일시운용수익 500원을 차감하면 된다.
② X: 44,000원은 일시운용수익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라서 틀리다. 틀린 표현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실제이자와 같게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43,500원이다.
③ X: 47,500원은 연간이자 48,000원 전체를 자본화한 뒤 일시운용수익 500원만 차감한 값으로 볼 수 있어 틀리다. 틀린 표현은 자본화기간을 차입기간 전체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건설 시작일인 20X1.2.1부터 11개월만 자본화한다.
④ X: 48,000원은 1년치 이자를 전부 자본화하고 일시운용수익도 차감하지 않은 값이라서 틀리다. 틀린 표현은 20X1년 1월 이자까지 포함하고 투자수익을 무시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43,5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특정목적차입금이라고 해서 차입기간 전체 이자를 그대로 자본화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자본화 시작시점이 20X1.2.1이라는 점과, 사용하지 않은 자금의 일시운용수익 500원을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정목적차입금 문제는 먼저 자본화 시작일과 종료일로 자본화기간을 자른 뒤 그 기간의 실제이자를 구하고, 남는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으면 그 수익을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특정목적차입금은 자본화기간 실제이자에서 일시운용수익을 뺀 값이 자본화가능차입원가이다.

NoteBase

문 6.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 갑(甲)시로부터 도서관 건설계약을 수주하였다. 동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으며, 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진행률을 계산할 경우, 20X2년 (주)서울이 인식할 공사손익은?

<보기>

- 계약금 : ₩2,000,000
- 공사기간 : 20X1년 1월 1일~20X3년 12월 31일
- 공사원가

구분	20X1년	20X2년	20X3년
총공사예정원가	₩1,800,000	₩2,100,000	₩2,100,000
당기공사원가	₩540,000	₩720,000	₩840,000

① ₩100,000 공사손실

② ₩120,000 공사손실

③ ₩140,000 공사손실

④ ₩160,000 공사손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계산한 뒤, 총공사예정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면 예상 총손실 전액을 즉시 반영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계약금액: 2,000,000원
- 20X1 총공사예정원가: 1,800,000원
- 20X2 총공사예정원가: 2,100,000원
- 당기공사원가: 20X1 540,000원, 20X2 720,000원
- 20X2 누적발생원가: 1,260,000원

NoteBase

사용할 공식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 / 총공사예정원가이다.
누적공사손익은 계약금액 × 진행률 - 누적발생원가이다.
총공사예정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면 예상 총손실 총공사예정원가 - 계약금액 전액을 즉시 손실로 반영한다.
이 문제는 20X2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2,100,000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계약이 손실계약으로 바뀌었으므로, 진행률 손익과 예상 총손실 인식을 함께 봐야 한다.

계산 과정

1. 20X1 진행률은 $540,000/1,800,000 = 30\%$이다. 따라서 20X1 누적수익은 600,000원, 누적공사이익은 600,000원 - 540,000원 = 60,000원이다.
2. 20X2 누적발생원가는 540,000원 + 720,000원 = 1,260,000원이다. 20X2 진행률은 $1,260,000/2,100,000 = 60\%$이다.
3. 따라서 20X2 말 누적수익은 2,000,000원 × 60% = 1,200,000원이고, 누적공사손익은 1,200,000원 - 1,260,000원 = 60,000원 손실이다.
4. 그러나 20X2 말 총공사예정원가가 2,100,000원이므로 총예정손실은 2,100,000원 - 2,000,000원 = 100,000원이다. 예상 총손실 전액을 즉시 반영해야 하므로 20X2 말 누적손실은 100,000원이 되어야 한다.
5. 20X1에 이미 60,000원 이익을 인식했으므로, 20X2 인식손실은 20X2 말 누적손실 100,000원 + 전기 인식이익 60,000원 = 160,000원 손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100,000 공사손실'은 20X2 말의 총예정손실 누계액에 해당할 뿐, 20X2 당기에 인식할 손실액은 아니다.
- 20X1에 이미 60,000원 이익을 인식했으므로 이를 뒤집는 효과까지 포함한 20X2 손실은 160,000원이다.

② X
- '₩120,000 공사손실'은 진행률 재계산에 따른 손익 변화만 반영한 금액이다.
- 20X2 말에는 총예정손실 100,000원 전액을 즉시 반영해야 하므로 추가 손실 40,000원이 더 필요하다.
올바르게는 ₩160,000 공사손실이다.

③ X
- '₩140,000 공사손실'은 20X2 말 누적손실을 100,000원까지 맞추지 못하는 금액이다.
- 20X1 이익 60,000원을 고려하면 20X2 손실이 140,000원이면 누적손실은 80,000원에 그쳐 부족하다.
올바르게는 ₩160,000 공사손실이다.

④ O
- 20X2 말 총예정손실은 100,000원이고, 20X1에 이미 60,000원 이익을 인식했다.
- 따라서 20X2에는 100,000원 손실 누계가 되도록 160,000원 손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옳은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진행률로 계산한 누적손익과 손실계약에서 즉시 반영해야 하는 총예정손실을 분리하지 않으면 100,000원이나 120,000원에서 멈추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당기손익'을 묻는데 '누적손실' 금액을 그대로 고르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사계약 계산형은 먼저 누적발생원가로 진행률을 다시 계산하고, 다음으로 수정된 총공사예정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초과하면 총예정손실 누계액을 구한 뒤, 이미 인식한 전기 손익과 비교하여 당기 인식손익을 산출한다.

암기 포인트

손실계약이 되면 진행률손익만 보지 않고 예상 총손실 전액을 즉시 반영하므로, 당기손익은 누적필요손익 - 전기누적손익으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7. (주)서울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 A와 제품 B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각각 ₩10과 ₩20이다. 총고정비는 ₩6,000이며 그 밖의 다른 비용은 없다. 현재 제품 A와 제품 B의 판매수량비율은 2 : 1이나, 향후 1 : 2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된다. 판매수량비율 변경에 따른 회사 전체의 손익분기점 판매수량 차이는?

① 90개 감소

② 90개 증가

③ 180개 감소

④ 차이 없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판매수량비율이 바뀔 때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용해 전체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주어진 값: 제품 A의 단위당 공헌이익 10원, 제품 B의 단위당 공헌이익 20원, 총고정비 6,000원이다.
- 현재 판매수량비율: A:B = 2:1이다.
- 변경 후 판매수량비율: A:B = 1:2이다.
- 구해야 할 값: 판매수량비율 변경 전후 회사 전체의 손익분기점 판매수량 차이이다.

사용할 공식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은 각 제품의 공헌이익에 판매수량비율을 반영해 구한다.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 = (Σ(각 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 × 비율))/(비율의 합)
전체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손익분기점 판매수량 = (총고정비)/(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
으로 구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두 제품을 일정 비율로 함께 판매하므로 회사 전체의 손익분기점은 개별 제품이 아니라 판매구성비를 반영한 평균 공헌이익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현재 비율 2:1의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은
$\frac{2\times 10+1\times 20}{3}=\frac{40}{3}$
이다.

2. 현재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frac{6{,}000}{40/3}=450$
개이다.

3. 변경 후 비율 1:2의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은
$\frac{1\times 10+2\times 20}{3}=\frac{50}{3}$
이다.

4. 변경 후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frac{6{,}000}{50/3}=360$
개이다.

5. 차이는 $450-360=90$개이므로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90개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현재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450개이고 변경 후는 360개이므로 90개 감소가 맞다.
② X: 90개 증가는 방향이 반대이다. 제품 B의 공헌이익이 더 크므로 판매비율이 1:2로 바뀌면 가중평균 공헌이익이 커져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줄어든다. 틀린 표현은 '90개 증가'이고, 올바르게는 '90개 감소'이다.
③ X: 180개 감소는 차이를 두 배로 계산한 값이다. 실제 차이는 $450-360=90$이다. 틀린 표현은 '180개 감소'이고, 올바르게는 '90개 감소'이다.
④ X: 차이 없음은 판매구성비 변화가 가중평균 공헌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 것이다. 현재는 40/3, 변경 후는 50/3으로 가중평균 공헌이익이 달라지므로 손익분기점 판매수량도 달라진다. 틀린 표현은 '차이 없음'이고, 올바르게는 '90개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개별 제품 공헌이익만 보고 손익분기점이 같다고 생각하거나, 판매비율이 바뀌면 어떤 제품의 비중이 늘어나는지를 거꾸로 보는 데 있다. 공헌이익이 더 큰 제품 B의 비중이 커지면 가중평균 공헌이익이 증가하므로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수제품 손익분기점 문제는 먼저 판매수량비율을 묶음으로 보고 가중평균 단위당 공헌이익을 계산한 뒤, 총고정비를 나누어 전체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을 구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이후 비율 변경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복수제품 손익분기점은 '판매비율 반영 가중평균 공헌이익'으로 계산하며, 고공헌이익 제품 비중이 커지면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감소한다.

NoteBase

문 8. (주)서울은 20X1년 초 만기 3년(일시상환), 액면금액 ₩100,000인 사채를 ₩92,500에 발행하였다.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연 7%(매년 말 지급조건)이고, 사채발행일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주)서울이 20X3년 초 사채 액면금액 전부를 ₩98,000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주)서울이 조기상환시점에 사채상환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단, 사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① ₩775

② ₩875

③ ₩975

④ ₩1,075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측정하는 할인발행사채의 조기상환 시점 장부금액을 구한 뒤, 조기상환대가와 비교하여 사채상환손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액면금액 100,000원, 발행가액 92,500원, 표시이자율 연 7%, 유효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 지급, 20X3년 초 조기상환가액 98,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X3년 초 조기상환 시 사채상환손실이다.
주의할 조건: 사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므로 조기상환 직전 장부금액은 유효이자율법으로 2년간 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한 금액이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유효이자율법의 장부금액 증가는 이자비용에서 현금지급이자를 뺀 금액이다.
할인차금 상각액=기초 장부금액 × 10\% - 100,000 × 7\%
기말 장부금액=기초 장부금액+할인차금 상각액
사채상환손실=조기상환지급액-조기상환 시 장부금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할인발행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면 장부금액이 매기 유효이자율에 따라 증가하고, 조기상환손익은 상환가액과 그 시점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1년 말 이자비용은 92,500원 × 10% = 9,250원이고, 현금지급이자는 100,000원 × 7% = 7,000원이다. 따라서 할인차금 상각액은 2,250원이고 장부금액은 94,750원이 된다.
2. 20X2년 말 이자비용은 94,750원 × 10% = 9,475원이고, 현금지급이자는 7,000원이다. 따라서 할인차금 상각액은 2,475원이고 장부금액은 97,225원이 된다.
3. 20X3년 초 조기상환 직전 장부금액은 97,225원이다.
4. 사채상환손실은 98,000원 - 97,225원 = 775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조기상환 시 장부금액이 97,225원이므로 상환가액 98,000원과의 차이인 775원이 사채상환손실이다.
2번 X: 875원은 조기상환 시점 장부금액을 정확히 구하지 못해 손실을 과대 계산한 값이다. 이 문항에서 맞는 금액은 775원이다.
3번 X: 975원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2년치 할인차금 상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값이다. 조기상환손익은 액면금액이 아니라 상각후원가와 상환가액을 비교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775원이다.
4번 X: 1,075원은 할인발행차금 상각 누계나 조기상환 직전 장부금액을 잘못 잡아 손실을 크게 계산한 값이다. 상각후원가 기준 장부금액은 97,225원이므로 올바르게는 775원이다.

오답 포인트

표시이자율 7%와 유효이자율 10%를 구분하지 못하면 장부금액 계산이 틀어진다. 또 조기상환손익을 액면금액 100,000원과 상환가액 98,000원의 차이로 보거나, 한 해의 상각만 반영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할인발행사채의 조기상환 문제는 발행가액에서 출발해 매기 이자비용과 현금지급이자의 차이만큼 장부금액을 누적한 뒤, 상환가액과 그 시점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채 조기상환손익은 상환가액과 상각후원가의 차이이며, 할인발행사채의 장부금액은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크면 매기 증가한다.

NoteBase

문 9.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작성한다.
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작성한다.
ㄷ.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ㄹ.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무제표 작성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재무제표의 작성단위를 지방자치단체 전체, 유형별 회계실체, 개별 회계실체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내부거래를 상계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유형별 회계실체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처럼 같은 유형에 속한 회계실체를 묶은 단위이다.
내부거래 상계 =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거래를 통합·합산 과정에서 서로 제거하여 중복계상을 막는 것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이 경우 내부거래를 상계한다.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하고 이 경우에도 내부거래를 상계한다.
반면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는다.
또한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은 틀리고 ㄴ도 틀리므로 `ㄱ, ㄴ`을 고른 ①이 정답이다.
- ㄱ의 틀린 부분은 `내부거래는 상계하지 아니하고`이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무제표는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할 때 내부거래를 상계한다.
- ㄴ의 틀린 부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이다.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해당 유형의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② X
- ㄱ은 틀리지만 ㄹ은 옳다. 따라서 `ㄱ, ㄹ`을 묶은 ②는 옳지 않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 ㄹ은 비교표시와 회계변경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맞다.
- 틀린 표현: `ㄱ, ㄹ`
- 올바른 표현: `ㄱ, ㄴ`

③ X
- ㄴ은 틀리지만 ㄷ은 옳다. 따라서 `ㄴ, ㄷ`을 묶은 ③도 옳지 않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 ㄷ은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에서는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므로 맞다.
- 틀린 표현: `ㄴ, ㄷ`
- 올바른 표현: `ㄱ, ㄴ`

④ X
- ㄷ과 ㄹ은 모두 옳다. 따라서 `ㄷ, ㄹ`을 고른 ④는 발문인 `옳지 않은 것`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 ㄷ은 개별 회계실체 단계의 미상계 원칙을, ㄹ은 비교표시와 회계정책·회계추정 변경의 주석 공시 원칙을 말하므로 둘 다 맞다.
- 틀린 표현: `ㄷ, ㄹ`
- 올바른 표현: `ㄱ, ㄴ`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작성단위를 섞어 본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 전체와 유형별 회계실체 단계에서는 내부거래를 상계하지만, 개별 회계실체 단계에서는 상계하지 않는다는 층위를 혼동하면 ㄱ과 ㄷ을 뒤바꾸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전체인지, 유형별 회계실체인지, 개별 회계실체인지 확인한다.
전체와 유형별이면 통합·합산 단계이므로 내부거래 상계라고 판단하고, 개별이면 단독 작성 단계이므로 내부거래 미상계라고 판단한다.
그다음 비교표시와 회계정책·회계추정 변경의 주석 공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전체·유형별은 상계, 개별은 미상계, 비교표시와 회계변경은 주석 공시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서울의 20X1년도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이 ₩29,000인 경우,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주)서울의 당기순이익은?

<보기>

(1)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당기순이익은 (?)이다.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4,000이다.
감가상각비는 ₩18,000이다.
유형자산처분손실은 ₩9,000이다.
사채상환이익은 ₩15,000이다.

(2)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

• 20X1년 기초금액 대비 기말금액의 증감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증감
매출채권(순액)	₩20,000 증가
재고자산	₩25,000 증가
선급비용	₩5,000 감소
유형자산(순액)	₩30,000 증가
매입채무	₩2,000 증가
자본금	₩10,000 감소
자본잉여금	₩40,000 증가

① ₩3,000

② ₩32,000

③ ₩55,000

④ ₩79,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간접법으로 표시한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에서 비현금손익과 운전자본 증감을 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29,000원이다.

비현금·비영업 조정: 감가상각비 18,000원 가산, 유형자산처분손실 9,000원 가산, 사채상환이익 15,000원 차감이다.

운전자본 조정: 매출채권(순액) 20,000원 증가 차감, 재고자산 25,000원 증가 차감, 선급비용 5,000원 감소 가산, 매입채무 2,000원 증가 가산이다.

주의할 조건: 매출채권이 순액이므로 대손상각비 4,000원은 순액 증가분에 이미 반영되어 별도 가산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당기순이익을 NI라고 두면 간접법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29{,}000 = NI + 18{,}000 + 9{,}000 - 15{,}000 - 20{,}000 - 25{,}000 + 5{,}000 + 2{,}000$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가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을 이미 제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항목과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이용해 당기순이익을 거꾸로 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비현금·비영업 손익 조정과 운전자본 조정을 모두 반영하면 위 식이 성립한다.
2. 조정액의 합계는 $18{,}000 + 9{,}000 - 15{,}000 - 20{,}000 - 25{,}000 + 5{,}000 + 2{,}000 = -26{,}000$ 이다.
3. 따라서 $29{,}000 = NI - 26{,}000$이므로 $NI = 55{,}000$이다.
4. 대손상각비 4,000원을 따로 더하지 않는 이유는 매출채권이 총액이 아니라 순액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계산 결과 당기순이익은 55,000원이므로 3,000원은 틀리다. 이 값은 비현금조정과 운전자본조정을 크게 누락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당기순이익이 3,0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이 55,000원이다'이다.
② X: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32,000원은 일부 조정항목의 부호를 잘못 적용하거나 조정항목을 누락했을 때 나오는 오답 방향의 값이다. 틀린 표현은 '당기순이익이 32,0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이 55,000원이다'이다.
③ O: $29{,}000 = NI - 26{,}000$이므로 $NI = 55{,}000$이다. 보기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다.
④ X: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79,000원은 매출채권(순액) 증가를 조정하면서 대손상각비를 다시 더하는 이중조정이나 운전자본 부호 오류가 섞일 때 나오는 과대계산 값이다. 틀린 표현은 '당기순이익이 79,0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이 55,000원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매출채권이 '순액'인데도 대손상각비 4,000원을 다시 더하는 이중조정이다. 순액 매출채권의 증감에는 대손상각비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 가산하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산한다. 또 유형자산(순액) 증감,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 관련 정보이므로 이 문항의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역산식에 직접 넣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간접법 문제는 먼저 순이익에서 현금흐름으로 가는지, 현금흐름에서 순이익으로 거꾸로 가는지를 정한다. 그다음 비현금손익 조정, 운전자본 증감 조정, 순액 표시 계정의 이중조정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간접법 역산은 '비현금비용 가산, 비현금이익 차감, 영업자산 증가 차감, 영업부채 증가 가산'이며,
매출채권(순액)은 대손상각비를 따로 더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1. 재고자산 수준의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재고자산이 기말재고자산보다 크다면,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은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보다 작다.

② 재고자산의 판매량이 생산량보다 작다면,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은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보다 크다.

③ 재고자산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한다면,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모두 같다.

④ 당기 재고자산이 증가한다면,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은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보다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고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전부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로 처리한다.
변동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를 제품원가로 처리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처리하고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등 가공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재고가 증가하면 제품원가에 포함되는 원가 범위가 넓은 방법일수록 비용 인식이 뒤로 미루어져 영업이익이 커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기초재고자산이 기말재고자산보다 크다는 것은 당기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다. 재고가 감소하면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과거 재고에 포함되어 있던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가공원가가 매출원가로 방출되므로, 직접재료원가만 재고에 남기는 초변동원가계산보다 영업이익이 작아진다.
② O: 판매량이 생산량보다 작으면 기말재고가 증가한다. 변동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를 재고자산에 포함하지만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 재고자산에 포함하므로, 재고 증가 시 변동원가계산의 비용 인식이 더 많이 이연되어 영업이익이 초변동원가계산보다 크다.
③ O: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면 재고수준 변동이 없다. 재고 증가나 감소로 인한 원가 이연 또는 방출 효과가 없으므로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같아진다.
④ X: 당기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큰 상태이다. 이때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까지 기말재고에 포함하여 비용 인식을 이연하므로 초변동원가계산보다 영업이익이 크다. 틀린 표현은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은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보다 크다'이고, 올바르게는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은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보다 크다'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재고 증가와 재고 감소의 방향을 뒤집는 데 있다. 재고가 증가하면 원가를 재고자산으로 많이 묶어 두는 전부원가계산의 이익이 가장 커지고, 재고가 감소하면 과거에 묶어 둔 원가가 매출원가로 풀리는 전부원가계산의 이익이 작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생산량과 판매량의 관계로 재고 증가 여부를 판단한다. 재고가 증가하면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가장 크고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가장 작다. 재고가 감소하면 그 순서가 반대로 작용한다. 재고 변화가 없으면 세 방법의 영업이익은 같아진다.

암기 포인트

재고 증가 시 영업이익은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 순으로 크고, 재고 감소 시에는 초변동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전부원가계산 순으로 크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서울의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

<보기>

• (주)서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은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이다.

• (주)서울은 비정상파손품의 원가는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항목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자산	₩1,000	₩1,500
당기매입액	₩20,000	₩24,000
매출액		₩22,000
순인상액		₩1,300
순인하액		₩700
정상파손		₩1,000
비정상파손	₩1,000	₩1,100

① ₩1,500

② ₩1,600

③ ₩1,700

④ ₩1,8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에서 원가율을 구한 뒤, 매출액과 정상파손 및 비정상파손을 차감한 기말재고의 판매가를 원가로 환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재고자산 원가 1,000원, 판매가 1,500원
당기매입액 원가 20,000원, 판매가 24,000원
순인상액 1,300원, 순인하액 700원
매출액 22,000원
정상파손 판매가 1,000원
비정상파손 원가 1,000원, 판매가 1,100원
구해야 할 값:
기말재고자산의 원가
주의할 조건: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이므로 원가율 계산 시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모두 반영한다. 비정상파손의 원가는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지만, 기말재고를 구할 때는 재고에서 빠진 수량이므로 판매가 기준 기말재고 계산에서 차감한다.

사용할 공식

원가율은 원가율=판매가능상품 원가판매가능상품 판매가 이다.
기말재고 원가는 기말재고 원가=기말재고 판매가× 원가율 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소매재고법은 먼저 판매가 기준 재고를 구하고, 여기에 원가율을 곱해 기말재고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판매가능상품 원가는 $1,000 + 20,000 = 21,000$원이다.
2. 판매가능상품 판매가는 $1,500 + 24,000 + 1,300 - 700 = 26,100$원이다.
3. 원가율은 $21,000 \div 26,100 \approx 0.8046$이다.
4. 기말재고 판매가는 $26,100 - 22,000 - 1,000 - 1,100 = 2,000$원이다.
5. 기말재고 원가는 $2,000 \times 0.8046 \approx 1,609$원이다.
6. 보기 금액 중 가장 가까운 값은 1,600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기말재고 원가는 약 1,609원이므로 1,500원은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 1,5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 약 1,600원이다'이다.

② O
원가율은 약 80.46%이고, 기말재고 판매가는 2,000원이다. 따라서 기말재고 원가는
$2,000 \times 0.8046 \approx 1,609$원이므로 보기에서는 1,600원이 맞다.

③ X
1,700원은 계산된 기말재고 원가 약 1,609원보다 크므로 옳지 않다. 틀린 표현은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 1,7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 약 1,600원이다'이다.

④ X
1,800원은 비정상파손이나 정상파손 차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값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 1,8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 약 1,600원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에서는 순인하액도 원가율 분모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둘째, 비정상파손의 원가를 매출원가에 넣지 않는다고 해서 기말재고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비정상파손은 재고에서 이미 빠진 항목이므로 판매가 기준 기말재고를 구할 때는 정상파손과 함께 차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매재고법 계산형은 먼저 판매가능상품의 원가와 판매가를 모아 원가율을 구하고, 다음으로 판매가 기준 기말재고를 계산한 뒤, 마지막에 원가율을 곱해 원가로 환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원가기준 가중평균이면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모두 분모에 반영하는지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은 '분모에 순인상·순인하 모두 반영, 기말판매가에서 파손 차감 후 원가율 적용'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3. (주)서울의 20X1년 초 자본 총계가 ₩100,000이고, 20X1년 중 자본 관련 거래가 <보기>와 같을 때 20X1년 말 자본 총계는?

<보기>
• 주당 액면가 ₩1,000의 보통주 10주를 주당 ₩900에 발행하였다.
• 전기에 주당 ₩2,000에 매입한 자기주식 10주를 소각하였다(상법상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름).
• 현금배당 ₩1,000을 실시하고 이익준비금으로 ₩100을 적립하였으며, 주식배당 ₩1,000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2,500 증가하였다.
• 20X1년의 총포괄이익은 ₩5,000이다.

① ₩111,000
② ₩112,000
③ ₩113,000
④ ₩114,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본 총계를 계산할 때 자본 총액을 바꾸는 거래와 자본 내부 대체 거래를 구분하고, 총포괄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이 이미 포함된다는 점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자본 총계는 100,000원이다.
유상증자는 10주 × 900원 = 9,000원만큼 자본 총계가 증가한다.
전기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 항목 재분류이므로 당기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현금배당 1,000원은 자본 총계를 감소시킨다.
이익준비금 100원 적립과 주식배당 1,000원은 자본 내부 대체이므로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총포괄이익 5,000원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2,500원이 이미 포함된다.

사용할 공식

기말 자본 총계는 기초 자본 총계에 소유주거래로 인한 순변동과 총포괄이익을 반영해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이 문항이 자본 항목의 명칭 변화가 아니라 기말 자본 총액 자체를 묻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초 자본 총계는 100,000원이다.
2. 유상증자 9,000원을 더하면 109,000원이다.
3. 자기주식 소각, 이익준비금 적립, 주식배당은 자본 총계 변동이 없고, 현금배당 1,000원을 차감하면 108,000원이다.
4. 총포괄이익 5,000원을 더하면 기말 자본 총계는 113,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11,0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자본 총계는 유상증자 9,000원 증가, 현금배당 1,000원 감소, 총포괄이익 5,000원 증가만 반영하면 되므로 113,000원이 된다. 틀린 금액 111,000원 → 올바르게는 113,000원이다.
② X: 112,000원도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소각, 이익준비금 적립, 주식배당은 자본 총액을 바꾸지 않는 내부 대체이므로 최종 금액은 113,000원이다. 틀린 금액 112,000원 → 올바르게는 113,000원이다.
③ O: 기초 자본 100,000원 + 유상증자 9,000원 - 현금배당 1,000원 + 총포괄이익 5,000원 = 113,000원이다. 기타포괄손익 2,500원은 총포괄이익 5,000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다시 더하지 않는다.
④ X: 114,000원은 현금배당을 차감하지 않거나 주식배당을 자본 증가로 오해한 금액이다. 주식배당은 자본 내부 대체일 뿐이므로 기말 자본 총계는 113,000원이다. 틀린 금액 114,000원 → 올바르게는 113,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기타포괄손익 2,500원과 총포괄이익 5,000원을 각각 따로 더하는 이중 가산이다. 또 자기주식 소각, 이익준비금 적립, 주식배당처럼 자본 내부에서만 이동하는 항목을 자본 총액 변동으로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본 총계 문제는 먼저 자본 총액을 실제로 늘리거나 줄이는 거래만 추린다. 그다음 내부 대체 항목은 제외하고, 손익 정보는 당기순이익인지 총포괄이익인지 범위를 확인해 중복 반영 여부를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본 총계는 외부와의 자본거래와 총포괄이익만 바꾸고, 자본 내부 대체는 총액을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금융자산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채무상품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즉시 장부에서 제거한다.

④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금융자산 분류별 손상차손 인식 대상과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시 기대신용손실 측정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별도의 손상차손 모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구별해야 하며, 기대신용손실 모형은 채무상품에는 적용되지만 지분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는 표현이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 자체가 이미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② X. 틀린 부분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는 표현이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은 손상차손을 별도로 당기손익에 재분류하지 않으며, 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신용이 손상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즉시 장부에서 제거한다"는 표현이다. 신용손상은 손상측정의 문제이지 곧바로 제거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이나 회수곤란이 있어도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장부에서 즉시 제거하지 않으며, 기대현금흐름을 반영해 손상을 측정한다.
④ O.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 아니라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다. 이 내용이 기대신용손실 모형의 단계 전환 기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하나로 묶어 외우면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손상처리를 뒤섞기 쉽다. 또한 "신용손상"과 "제거"를 같은 의미로 보면 ③처럼 손상 인식과 제거 인식을 혼동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금융자산 분류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중 무엇인지 구분한다. 그다음 손상모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상각후원가나 채무상품에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넘어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FVTPL은 별도 손상 없음, FVOCI 지분은 손상 재분류 없음, 상각후원가는 신용위험 증가 시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이다.

NoteBase

문 15. (주)서울은 20X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1인당 주식선택권을 10개씩 부여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보기>와 같다. (주)서울이 20X3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보기>

- 가득요건 : 20X1년 초부터 4년간 근무
- 20X1년 초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 : ₩100
- 연도별 세부자료

연도	주식선택권 단위당 기말 공정가치	해당연도 실제 퇴사자	향후 추가 퇴직 예상자
20X1	₩120	3명	14명
20X2	₩130	2명	7명
20X3	₩150	1명	4명
20X4	₩160	4명	–

① ₩13,500

② ₩23,500

③ ₩33,500

④ ₩43,5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주식보상비용을 부여일 공정가치와 가득 예상 수량으로 누적 배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 부여수량은 100 × 10 = 1,000개이다.
가득조건은 20X1년 초부터 4년 근무이다.
주식결제형이므로 단위당 공정가치는 부여일인 20X1년 초의 100원을 사용한다.
20X3년 말 기준 예상 최종 가득 인원은 100 − 3 − 2 − 1 − 4 = 90명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누적 주식보상비용은 예상 가득수량 × 부여일 공정가치 × 경과용역기간 / 총 가득기간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은 부여일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매기말에는 실제 퇴사와 예상 퇴사를 반영해 가득 예상 수량만 수정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20X2년 말 누적 주식보상비용은 $88 \times 10 \times 100 \times \frac{2}{4} = 44{,}000$원이다.
20X3년 말 누적 주식보상비용은 $90 \times 10 \times 100 \times \frac{3}{4} = 67{,}500$원이다.
따라서 20X3년에 추가로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67{,}500 - 44{,}000 = 23{,}5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3,500원은 20X3년 당기비용을 누적보상비용 구조로 계산하지 못한 수치이다. 올바르게는 20X3년 말 누적액 67,500원에서 20X2년 말 누적액 44,000원을 차감한 23,500원이다.
② O: 20X3년 인식액은 23,500원이다. 주식결제형이므로 20X3년 말 공정가치 150원을 쓰지 않고 부여일 공정가치 100원을 사용한다.
③ X: 33,500원은 당기 인식액과 누적 인식액을 혼동하거나 예상 가득 인원을 잘못 반영한 수치이다. 올바르게는 당기 인식액만 계산해 23,500원으로 본다.
④ X: 43,500원은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비용 44,000원을 정확히 차감하지 못한 수치이다. 올바르게는 67,500원에서 44,000원을 차감한다.

오답 포인트

주식선택권의 기말 공정가치 120원, 130원, 150원, 160원을 보고 매년 재측정하는 현금결제형처럼 풀기 쉽다.
또 20X3년 말 누적보상비용 67,500원과 20X3년 당기비용 23,500원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식보상 계산문제는 먼저 주식결제형인지 현금결제형인지 구분하고, 주식결제형이면 부여일 공정가치를 고정한 뒤 매기말 예상 가득 인원으로 누적보상비용을 다시 계산해 전기 누적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주식결제형은 부여일 공정가치 고정, 매년 바뀌는 것은 가득 예상 수량과 누적 인식액이다.

NoteBase

문 16. ㈜서울은 두 개의 제조부문과 두 개의 보조부문을 두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보기>와 같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으로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제조부문 Y에서 개별제품에 배부해야 할 원가총액은?

<보기>

사용부문 / 제공부문	보조부문		제조부문	
	A	B	X	Y
A	–	50%	10%	40%
B	20%	–	40%	40%
발생원가	₩200,000	₩350,000	₩1,000,000	₩1,200,000

① ₩1,480,000

② ₩1,500,000

③ ₩1,520,000

④ ₩1,54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으로 완전배부한 뒤 제조부문 Y의 총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보조부문 A 발생원가 200,000원, 보조부문 B 발생원가 350,000원, 제조부문 X 발생원가 1,000,000원, 제조부문 Y 발생원가 1,2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상호배분법 적용 후 제조부문 Y의 개별제품에 배부할 원가총액이다.
주의할 조건은 A와 B가 서로에게 용역을 제공하므로 직접배분법이 아니라 연립방정식으로 보조부문 총원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보조부문 상호배분법에서는 각 보조부문의 총원가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한다.

$A = 200{,}000 + 0.2B$

$B = 350{,}000 + 0.5A$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A가 B로부터 20%의 용역을 받고, B가 A로부터 50%의 용역을 받기 때문이다.

발생원가만으로는 최종 배부원가가 확정되지 않는다.

계산 과정

1. 연립방정식을 푼다.

$A = 200{,}000 + 0.2(350{,}000 + 0.5A) = 270{,}000 + 0.1A$

$0.9A = 270{,}000$

$A = 300{,}000$

2. B의 총원가를 구한다.

$B = 350{,}000 + 0.5 \times 300{,}000 = 500{,}000$

3. 제조부문 Y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를 구한다.

A에서 Y로는 $300{,}000 \times 40\% = 120{,}000$원이다.

B에서 Y로는 $500{,}000 \times 40\% = 200{,}000$원이다.

4. 제조부문 Y의 총원가를 구한다.

$1{,}200{,}000 + 120{,}000 + 200{,}000 = 1{,}520{,}000$

따라서 제조부문 Y에서 개별제품에 배부할 원가총액은 1,52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480,000원은 정답 1,520,000원보다 40,000원 작다. 틀린 값 1,480,000원 → 올바르게는 1,520,000원이다.

이 값은 상호배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보조부문 상호제공분을 누락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이다.

② X

1,500,000원은 정답 1,520,000원보다 20,000원 작다. 틀린 값 1,500,000원 → 올바르게는 1,520,000원이다.

이 값은 보조부문 간 상호배분 비율을 한쪽만 반영하거나 중간 계산에서 반올림한 경우의 오답이다.

③ O

연립방정식으로 구한 보조부문 총원가는 A 300,000원, B 500,000원이다. 따라서 Y 배부액은 120,000원과 200,000원의 합계 320,000원이고, 기존 발생원가 1,200,000원을 더하면 1,520,000원이므로 옳다.

④ X

1,540,000원은 정답 1,520,000원보다 20,000원 크다. 틀린 값 1,540,000원 → 올바르게는 1,520,000원이다.

이 값은 상호배분 과정에서 보조부문 간 중복배부를 제거하지 못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보조부문 A와 B의 발생원가만 바로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직접배분법으로 접근하기 쉽다는 점이다. 발문에 상호배분법이 명시되었으므로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을 먼저 연립방정식에 반영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부문이 서로 용역을 제공하면 먼저 각 보조부문의 총원가를 연립방정식으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제조부문 배부비율을 곱해 최종 제조원가를 구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용역을 먼저 반영하고, 제조부문 배부는 그 뒤에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7. 리스이용자인 (주)서울은 리스개시일인 20X1년 1월 1일에 <보기>와 같은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초자산(본사사옥)을 리스하였다. (주)서울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하였다. 리스개시일의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이 ₩2,630인 경우, (주)서울의 리스거래가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보기>

• 기초자산의 리스기간은 20X1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이다.
•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 고정리스료는 ₩1,000이며,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지급한다.
• (주)서울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을 현금 ₩200에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개시일 현재 동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용권자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치는 없다.
• 20X1년 1월 1일에 동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연 10%로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이를 쉽게 산정할 수 있다.

① ₩263 감소
② ₩526 감소
③ ₩663 감소
④ ₩1,040 감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매수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리스에서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기간과 리스부채 이자비용을 함께 반영해 20X1년 당기순이익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 2,630원, 연말 고정리스료 1,000원, 내재이자율 연 10%이다.
사용권자산은 별도 가감요인이 없으므로 최초 인식금액을 2,630원으로 본다.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므로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 3년이 아니라 기초자산 내용연수 10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구해야 할 값은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감소액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이자비용 = 기초 리스부채 × 유효이자율이다.
감가상각비 = 사용권자산 원가 ÷ 감가상각기간이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지급액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구분해 손익에 반영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리스개시일 사용권자산 원가는 2,630원이다.
2. 20X1년 감가상각비는 $2,630 \div 10 = 263$원이 된다.
3. 20X1년 이자비용은 $2,630 \times 10\% = 263$원이 된다.
4. 따라서 20X1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263원 감가상각비와 263원 이자비용의 합계인 526원 감소이다.
5. 연말 지급리스료 1,000원은 현금유출이지만 그 전액이 비용은 아니고, 이 중 상당 부분은 리스부채 상환이다.

선지 판단

1번 X: 263원 감소는 감가상각비만 반영한 값이다. 틀린 부분은 이자비용 263원을 누락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20X1년 손익에는 감가상각비 263원과 이자비용 263원이 함께 반영되어 526원 감소이다.
2번 O: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263원과 리스부채 이자비용 263원을 합하면 526원 감소가 된다. 매수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므로 감가상각기간을 10년으로 잡는 점이 핵심이다.
3번 X: 663원 감소는 실제 손익 구성과 맞지 않는 값이다. 20X1년 손익에 들어가는 비용항목은 감가상각비 263원과 이자비용 263원뿐이므로 합계는 526원이다.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 감소액을 526원으로 보아야 한다.
4번 X: 1,040원 감소는 연말 지급리스료 1,000원을 비용과 혼동하거나 비용을 중복 계산한 값이다. 틀린 부분은 현금지급액을 손익비용 총액처럼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지급액 중 부채상환 부분을 제외하고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만 반영해 526원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면 사용권자산 감가상각기간을 리스기간이 아니라 내용연수로 잡는다. 또 리스료 지급액과 당기 비용을 같은 것으로 보면 4번 같은 오답에 끌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스 손익 문제는 먼저 매수선택권 행사 가능성으로 감가상각기간을 정한 뒤,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을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현금지급액은 마지막에 부채상환분과 비용분을 구분해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매수선택권 행사 확실이면 사용권자산은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당기손익은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의 합으로 본다.

NoteBase

문 18.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다.

②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신뢰성 있게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③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④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개념, 회수가능성 검토, 측정 원칙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때문에 미래 회계기간에 추가로 납부할 법인세 효과이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등으로 미래에 절감될 법인세 효과이며, 미래 과세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야 인식한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적용될 세율을 반영해 측정하지만 현재가치로 할인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해 미래에 더 납부하게 될 법인세 금액이므로 설명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현재가치로 할인한다'이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신뢰성 있게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항목이 아니라, 미래에 적용될 세율을 반영하되 할인 없이 측정한다.

③ O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 과세소득으로 혜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유지된다. 그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장부금액을 감액하므로 설명이 맞다.

④ O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면 감액하고, 높아지면 범위 내에서 환입할 수 있으므로 설명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법인세'라는 말 때문에 금융부채처럼 현재가치 측정을 떠올리면 틀리기 쉽다. 이연법인세는 미래 세금효과를 반영하지만 할인 여부는 별개이며, 기준서는 할인 측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연법인세 문항은 먼저 부채인지 자산인지 구분하고, 다음으로 회수가능성 검토 대상인지, 마지막으로 측정 시 할인 여부를 묻는지 확인하면 된다. '현재가치 할인'이 보이면 우선 오답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 납부,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 절감, 이연법인세는 할인 없음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9. (주)서울은 전동킥보드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다. 현재 월간 생산판매수량은 2,000단위이나 (주)한국으로부터 800단위를 공급해 달라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동 주문은 변동제조원가가 기존보다 5% 증가하고 변동판매관리비는 기존의 10%만 발생하며 고정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서울이 동 주문을 수락하기 위한 단위당 최저 판매가격은?

<보기>

월간 최대 생산량	2,500단위
단위당 판매단가	₩20,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10,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2,000
월간 고정원가	₩10,000,000

① ₩10,700

② ₩11,700

③ ₩12,700

④ ₩13,7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특별주문 수락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관련원가와 생산능력 부족으로 생기는 기회비용을 함께 반영하여 단위당 최저 판매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정상 월간 생산판매량은 2,000단위이고 최대 생산량은 2,500단위이므로 유휴생산능력은 500단위이다.
특별주문 800단위 중 500단위는 유휴능력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나머지 300단위는 정상판매를 대체한다.
특별주문의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기존 10,000원의 5% 증가분을 반영한 10,500원이고,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기존 2,000원의 10%인 200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최저수락가격 = 추가관련원가 + 기회비용
단위당 최저 판매가격 = (특별주문 총변동원가 + 상실공헌이익)/(특별주문수량)
최대생산능력을 초과한 300단위는 정상판매를 포기하게 하므로 단순 변동원가뿐 아니라 포기되는 공헌이익도 포함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특별주문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10,500원 + 200원 = 10,700원이다.
2. 특별주문 800단위의 총변동원가는 10,700원 × 800 = 8,560,000원이다.
3. 정상판매 1단위의 공헌이익은 20,000원 - 10,000원 - 2,000원 = 8,000원이다.
4.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300단위 때문에 포기하는 공헌이익은 8,000원 × 300 = 2,400,000원이다.
5. 특별주문 수락에 필요한 총관련원가는 8,560,000원 + 2,400,000원 = 10,960,000원이다.
6. 단위당 최저 판매가격은 10,960,000원 ÷ 800 = 13,7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0,700원은 특별주문의 변동제조원가와 변동판매관리비만 반영한 값이다. 최대생산량 초과로 정상판매 300단위를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상실공헌이익 2,400,000원을 누락하였다. 올바르게는 최저 판매가격이 10,700원이 아니라 13,700원이다.
② X: 11,700원은 기회비용을 단위당 1,000원만 반영한 수준의 값으로, 정상판매를 대체하는 300단위 전체의 상실공헌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계산이다. 올바르게는 300단위의 상실공헌이익 2,400,000원을 800단위에 배분해야 하므로 최저 판매가격은 11,700원이 아니라 13,700원이다.
③ X: 12,700원은 기회비용을 단위당 2,000원만 반영한 값으로, 정상판매 1단위당 공헌이익 8,000원과 대체물량 300단위를 모두 반영한 결과보다 작다. 올바르게는 상실공헌이익 2,400,000원을 포함한 단위당 최저 판매가격이 12,700원이 아니라 13,700원이다.
④ O: 특별주문 총변동원가 8,560,000원에 정상판매 포기분 기회비용 2,400,000원을 더하면 총관련원가가 10,960,000원이다. 이를 8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최저 판매가격은 13,7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유휴생산능력 500단위만 보고 특별주문 전체를 추가 생산으로 처리하면 300단위의 정상판매 포기분을 놓치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변동원가 계산 자체보다 최대생산량 2,500단위와 특별주문 800단위를 함께 보아 기회비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별주문 의사결정 문제는 먼저 유휴생산능력으로 충당 가능한 수량을 계산하고, 초과 수량이 있으면 그 수량만큼의 정상판매 공헌이익을 기회비용으로 더해 판단한다. 그다음 총관련원가를 주문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최저 수락가격을 구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특별주문 최저가격은 추가변동원가에 생산능력 부족분의 상실공헌이익을 더한 값이다.

NoteBase

문 20.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서술하고 있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중요성은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하므로 미리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할 수 없다.
ㄴ. 중립적 서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신중성으로 뒷받침된다.
ㄷ. 기업의 재무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와 비교될 수 있을 때 유용하다.
ㄹ. 재무정보는 오류가 없이 서술되어야 하므로 추정치에 포함된 측정불확실성은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재무보고 개념체계상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그리고 보강적 질적 특성인 비교가능성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목적적합성은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성질이며, 중요성은 그 기업 특유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판단되는 목적적합성의 한 측면이다.
충실한 표현은 완전성, 중립성, 오류 없음으로 설명되며, 불확실성 아래의 신중성은 중립적 서술을 뒷받침한다.
비교가능성은 정보를 더 유용하게 만드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므로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류 없음을 이유로 추정치의 측정불확실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추정 과정이 적절히 기술되면 정보는 여전히 유용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과 ㄴ만 옳다. ㄱ은 중요성이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 판단이라는 점을 말한 것이고, ㄴ은 불확실성 하의 신중성이 중립성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ㄷ을 포함한 점이다. ㄷ의 내용은 비교가능성에 관한 설명이므로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하고, 근본적 질적 특성의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올바르게는 "비교가능성은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ㄷ을 포함한 점이다.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비교가능성 설명이므로 근본적 질적 특성의 설명으로 묶을 수 없다. 올바르게는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ㄹ을 포함한 점이다. 충실한 표현의 오류 없음은 추정 과정과 서술에 오류가 없다는 뜻이지 추정치에 측정불확실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추정치에 측정불확실성이 있어도 그 추정이 적절히 기술되면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ㄷ은 문장 자체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비교가능성은 근본적이 아니라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는 분류가 핵심 함정이다. ㄹ도 오류 없음을 절대적 정확성으로 오해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근본적 질적 특성이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뿐인지 확인한 뒤,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구분한다. 오류 없음이 나오면 추정불확실성 자체의 존재와 추정 과정의 적정성을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근본적은 목적적합성·충실한 표현이고, 비교가능성은 보강적이며, 오류 없음은 무추정이 아니라 적정 추정을 전제로 한다.

NoteBase